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2년 3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1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2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5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9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0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3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5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8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3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5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3,912	20.6	53,082	25.2	830
일본 부분	2,470	12.7	4,708	14.4	-2,238
일본 비중	4.6		8.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

	2021년 2월	2022년 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038,347	7,189,878	19.1
수입(백만¥, %)	5,862,420	7,859,539	34.1
수지(백만¥, %)	175,927	-669,661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3,744	2,887	18,134	2,955	6,988	4,768
한국 부분(억¥)	34	169	51	56	-229	69
한국 비중(%)	0.2	5.9	0.3	1.9	-	1.4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월 12일, 2월 8일, 3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2월	2022년2월	증감률		2021년2월	2022년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5,582	99,999	52.5	전체	7,355	16,700	127.1
방한 일본인	1,719	2,934	70.7	방일 한국인	910	900	-1.1
일본인 비중	2.62	2.93		한국인 비중	12.37	5.3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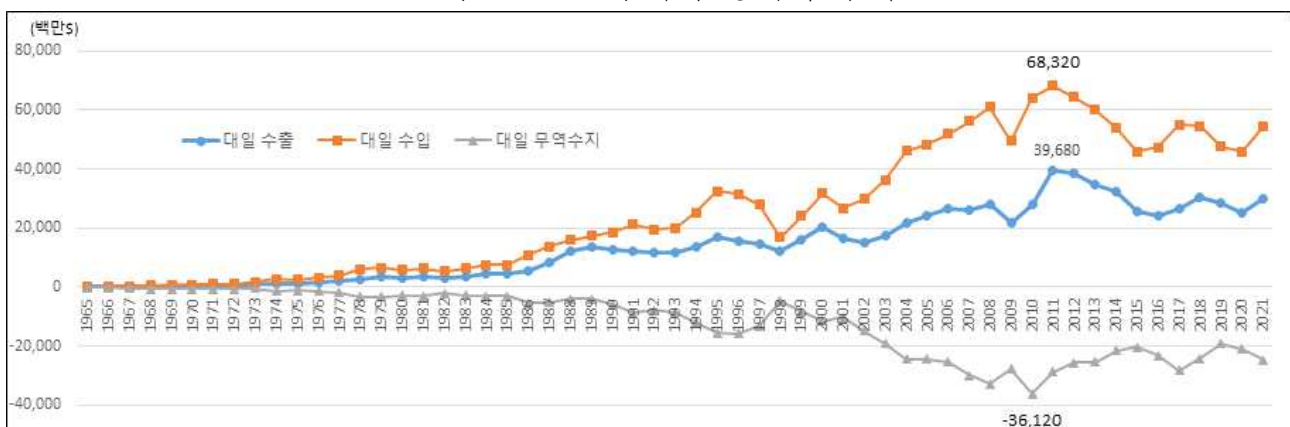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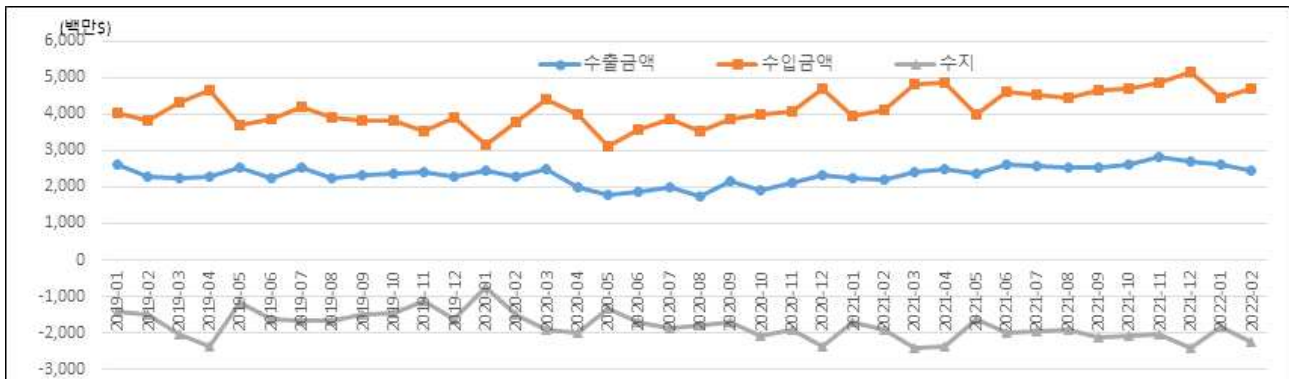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2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6.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1년에는 대일 수출(300.6억 달러)과 수입(546.4억 달러)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수입 증가액이 수출 증가액보다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245.8억 달러)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2월에는 전월대비 수출은 감소하였고, 수입은 증가하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대일 수출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2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였음
- 대일 수입은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4월부터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2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COVID-19 발생 이후 2020년 5월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 또는 정체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2년 2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7% 증가하였고, 대일 수입은 동(同) 14.4%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3,912	20.6	53,082	25.2	830
일본 부분	2,470	12.7	4,708	14.4	-2,238
일본 비중	4.6		8.9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2년 2월에 한국전체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하여 539.1억 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출은 동(同) 12.7% 증가하여 24.7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2월에 한국전체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25.2% 증가하여 530.8달러가 되었고, 대일 수입은 동(同) 14.4% 증가하여 47.1억 달러가 되었음

- 2022년 2월에 한국 전체 무역수지는 8.3억 달러 흑자였고, 대일 무역수지는 22.4억 달러 적자였음
 - 2022년 2월에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6%였고, 수입 경우는 8.9%였음
- <표2> 및 <표3>은 2022년 2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8개 품목이, 수입 경우는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2> 한국의 2022년 2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2월(백만\$, %)			2022년 2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192	-3.2	-1,925	2,470	12.7	-2,238
1	광물성연료	391	-2.3	335	441	12.8	336
2	철강제품	283	2.2	-137	317	12.1	-396
3	정밀화학제품	190	12.9	-176	287	51.4	-113
4	석유화학제품	118	5.4	-170	197	67.0	-90
5	전자부품	133	5.3	-418	162	22.1	-518
6	산업용전자제품	120	-20.0	-111	115	-4.4	-112
7	금속광물	139	22.1	74	106	-23.9	-1
8	농산물	80	-11.5	61	82	2.9	59
9	비철금속제품	41	-3.8	-80	76	87.9	-71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67	-18.4	-42	72	7.2	-45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2년 2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21년 2월(백만\$, %)			2022년 2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117	9.1	-1,925	4,708	14.4	-2,238
1	철강제품	419	-2.6	-137	713	70.3	-396
2	전자부품	551	19.0	-418	680	23.6	-518
3	정밀기계	596	40.5	-558	474	-20.5	-436
4	정밀화학제품	365	-0.7	-176	400	9.7	-113
5	석유화학제품	287	7.9	-170	287	-0.1	-90
6	산업용전자제품	230	2.3	-111	227	-1.4	-112
7	산업기계	129	-29.9	-67	197	53.3	-131
8	기초산업기계	201	13.2	-141	193	-3.7	-130
9	플라스틱제품	214	17.2	-150	190	-11.1	-132
10	수송기계	146	-19.9	-84	187	27.9	-134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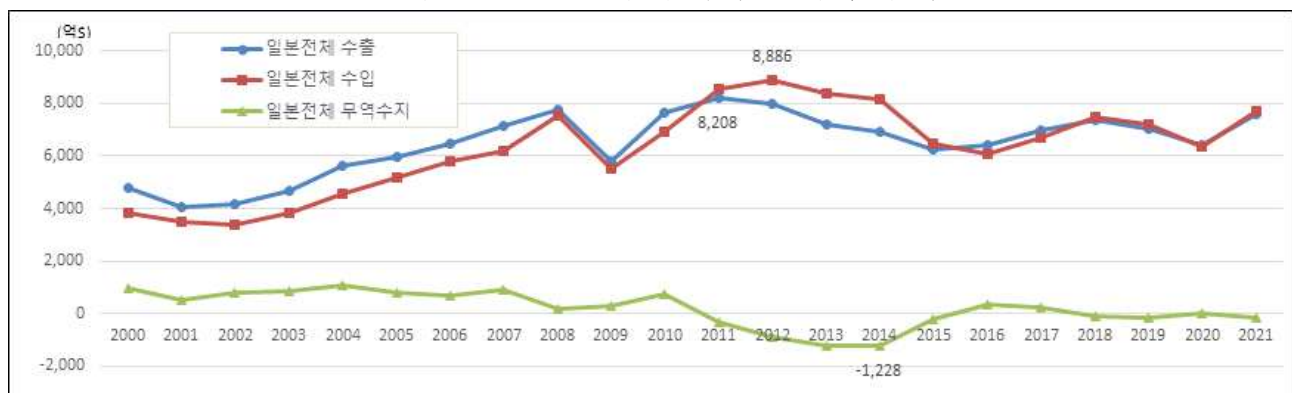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비철금속제품(87.9%), 석유화학제품(67.0%), 정밀화학제품(51.4%) 등 8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금속광물(-23.9%), 산업용 전자제품(-4.4%) 2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철강제품(70.3%), 산업기계(53.3%), 수송기계(27.9%) 등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정밀기계(-20.5%), 플라스틱제품(-11.1%) 등 5개 품목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 2016년과 2017년 흑자, 2018년과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로 나타남
- 2020년 일본전체 수출은 6,399억 달러, 수입은 6,357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무역수지는 42억 달러 흑자였음
- 2021년 일본전체 수출은 7,586억 달러, 수입은 7,716억 달러로 수출 및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지만, 무역수지는 130억 달러 적자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흑자에서 당월 적자로 전환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상황

	2021년 2월	2022년 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038,347	7,189,878	19.1
수입(백만¥, %)	5,862,420	7,859,539	34.1
수지(백만¥, %)	175,927	-669,661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광물성연료, 자동차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여 7조 1,899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액화천연가스, 의약품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4.1% 증가하여 7조 8,595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1,759억 엔 흑자에서 당월 6,697억 엔 적자로 전환되었음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부 감소 지역도 있지만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2%, 수입의 43.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아시아 무역수지는 7,450억 엔 흑자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0.6%, 수입의 19.5%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558억 엔이었음
 - 홍콩은 수출의 4.7%, 수입의 0.1%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홍콩 무역흑자는 3,275억 엔이었음
 - 대만은 수출의 7.3%, 수입의 3.9%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163억 엔이었음
 - 한국은 수출의 7.8%, 수입의 3.8%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568억 엔이었음
 - 미국은 수출의 17.6%, 수입의 11.0%를 차지하였는데,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4,027억 엔이었음
 - 서유럽 전체에 대해 수출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독일은 수출의 2.5%, 수입의 2.4%를 차지하였음
 - 영국은 수출의 1.3%, 수입의 0.7%를 차지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7,189,878	100.0	19.1	7,859,539	100.0	34.1	-669,661	-
아시아	4,185,752	58.2	25.2	3,440,758	43.8	16.7	744,994	88.7
중국	1,477,532	20.6	25.8	1,533,381	19.5	5.8	-55,849	-79.7
홍콩	337,115	4.7	30.1	9,576	0.1	34.4	327,539	30.0
대만	523,015	7.3	26.9	306,702	3.9	30.0	216,313	22.9
대한민국	557,246	7.8	31.3	300,421	3.8	24.1	256,825	41.1
싱가포르	183,564	2.6	10.4	86,953	1.1	29.3	96,611	-2.4
태국	325,740	4.5	15.7	265,186	3.4	17.3	60,554	9.1
말레이시아	153,245	2.1	15.3	223,644	2.8	29.1	-70,399	74.7
인도네시아	140,129	1.9	38.9	237,683	3.0	53.1	-97,554	79.7
필리핀	114,539	1.6	41.8	103,064	1.3	16.7	11,475	-
베트남	178,142	2.5	19.8	217,086	2.8	12.1	-38,944	-13.3
인도	120,378	1.7	10.1	70,646	0.9	71.0	49,732	-26.9
대양주	195,548	2.7	13.4	726,463	9.2	89.7	-530,915	152.2
호주	156,384	2.2	18.5	654,634	8.3	96.9	-498,250	148.6
뉴질랜드	27,084	0.4	31.0	17,957	0.2	20.6	9,127	57.9
북미	1,358,612	18.9	16.2	1,012,499	12.9	40.1	346,113	-22.4
미국	1,267,518	17.6	16.0	864,775	11.0	38.9	402,743	-14.3
캐나다	91,094	1.3	18.6	147,065	1.9	47.6	-55,971	145.0
중남미	257,752	3.6	5.9	333,392	4.2	31.2	-75,640	596.1
서유럽	734,059	10.2	6.1	962,097	12.2	27.4	-228,038	260.6
독일	182,463	2.5	8.6	192,110	2.4	-10.3	-9,647	-79.0
영국	93,272	1.3	1.6	57,753	0.7	-3.3	35,519	10.7
프랑스	55,834	0.8	-0.9	97,390	1.2	17.9	-41,556	57.9
네덜란드	109,239	1.5	-0.5	41,423	0.5	50.8	67,816	-17.6
이탈리아	54,475	0.8	15.2	115,790	1.5	34.3	-61,315	57.7
벨기에	71,361	1.0	20.8	87,657	1.1	342.4	-16,296	-
스위스	38,143	0.5	-13.9	85,585	1.1	6.2	-47,442	30.8
스웨덴	9,583	0.1	-16.0	29,297	0.4	20.6	-19,714	53.1
아일랜드	18,077	0.3	171.1	45,639	0.6	20.1	-27,562	-12.0
스페인	21,576	0.3	25.1	84,958	1.1	183.2	-63,382	397.1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76,560	2.5	18.6	288,745	3.7	86.4	-112,185	1774.6
중동	184,591	2.6	-0.3	945,260	12.0	73.7	-760,669	111.8
아프리카	97,005	1.3	16.5	150,321	1.9	52.3	-53316	245.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9개 품목 중 수출 수입 9개 품목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는 광물성연료(139.3%), 원료별제품(31.1%), 기타(27.8%) 등 9개 품목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출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일반기계(3.9%), 기타(3.6%), 원료별제품(3.4%)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광물성연료(79.0%), 화학제품(59.9%), 원료품(38.9%) 등 9개 품목 모두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 증가기여도 측면에서는 광물성연료(16.1%), 화학제품(6.4%), 원료품(2.8%) 등의 순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2년 2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7,189,878	100.0	19.1	19.1	7,859,539	100.0	34.1	34.1
1 식료품	75,376	1.0	18.3	0.2	600,039	7.6	28.9	2.3
2 원료품	118,593	1.6	13.6	0.2	584,392	7.4	38.9	2.8
3 광물성연료	144,827	2.0	139.3	1.4	2,143,679	27.3	79.0	16.1
4 화학제품	913,395	12.7	19.8	2.5	996,253	12.7	59.9	6.4
5 원료별제품	876,353	12.2	31.1	3.4	698,972	8.9	23.4	2.3
6 일반기계	1,429,905	19.9	19.7	3.9	624,476	7.9	9.4	0.9
7 전기기기	1,268,552	17.6	16.0	2.9	1,107,594	14.1	15.4	2.5
8 수송용기기	1,370,430	19.1	4.3	0.9	235,007	3.0	7.0	0.3
9 기타	992,445	13.8	27.8	3.6	869,128	11.1	3.6	0.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2년 3월 30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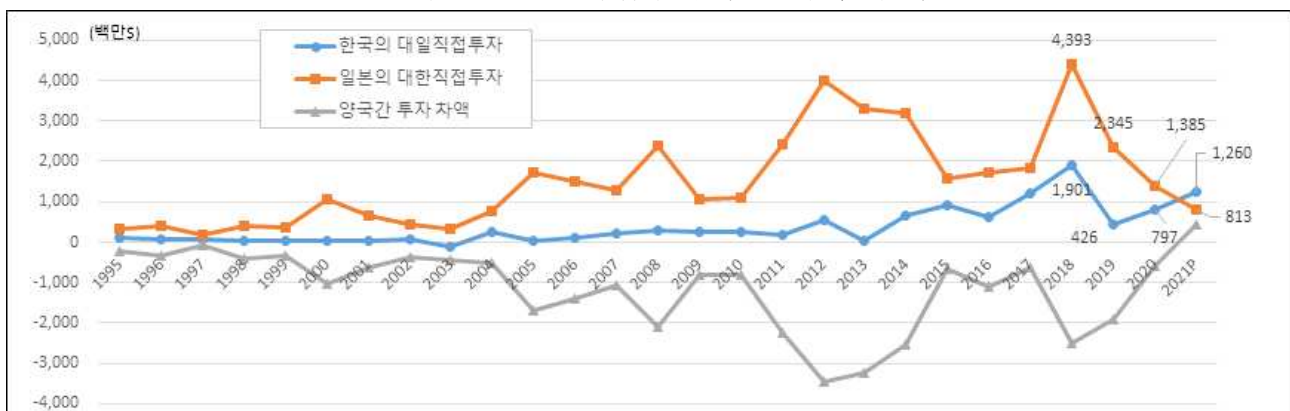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2021년에는 역전되었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경우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한일간 갈등 및 COVID-19 등으로 연속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음
- 2021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추정치)는 12.60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287.94억 달러의 4.4%를 차지하였음
- 2021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추정치)는 8.13억 달러였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1,487.19억 달러의 0.5%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일본 전체(억¥)	13,744	2,887	18,134	2,955	6,988	4,768
한국 부분(억¥)	34	169	51	56	-229	69
한국 비중(%)	0.2	5.9	0.3	1.9	-	1.4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1월 12일, 2월 8일, 3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2월 1조 8,134억 엔에서 2022년 1월 6,988억 엔으로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12월 51억 엔에서 2022년 1월 -229억 엔 즉 마이너스로 전환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2021년 12월 2,955억 엔에서 2022년 1월 4,768억 엔으로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2021년 12월 56억 엔에서 2022년 1월 69억 엔으로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1.9%에서 1.4%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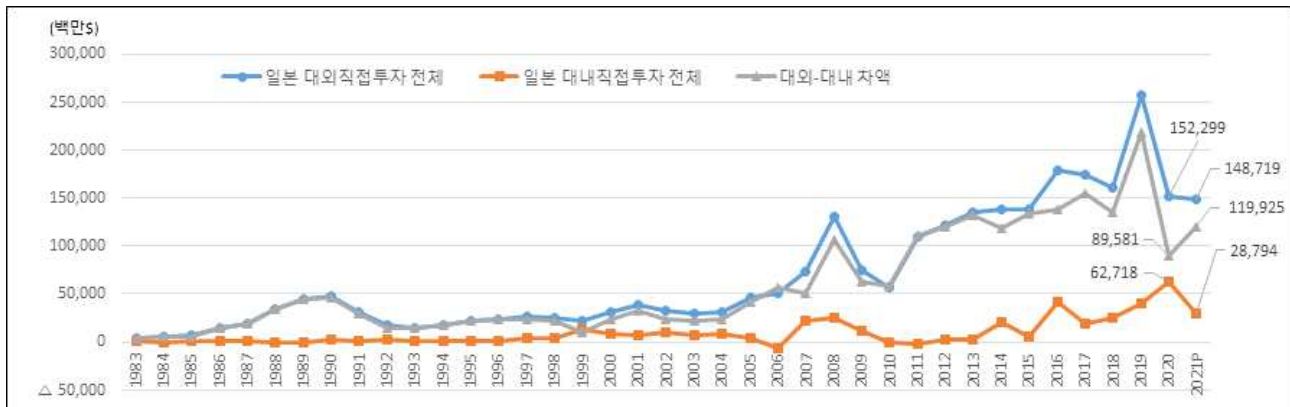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20년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523억 달러로 되었지만, 대내직접

투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상최대인 627억 달러에 달했으며,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896억 달러로 되었음

- 2021년(추정치)에는 대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1,487억 달러, 대내직접투자도 전년대비 감소하여 288억 달러로 되었고, 대외-대내 차액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1,199억 달러로 되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2년 1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6,988억 엔이었으며,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4,768억 엔이었음
-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6,988억 엔(실행 43,659; 회수 36,672)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74.6%), 대양주(22.6%), 중남미(20.5%), 아시아(3.2%)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4,740억 엔), 호주(1,492억 엔), 중국(634억 엔) 등에 순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음
-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4,768억 엔(실행 36,294; 회수 31,526)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지역별로 북미(53.7%), 아시아(20.7%), 유럽(16.9%), 대양주(16.8%)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으며, 아프리카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 대내직접투자 플러스 순투자가 큰 곳은 미국(2,855억 엔), 네덜란드(1,125억 엔), 대만(857억 엔), 호주(819억 엔) 등이었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2년 1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실행 Execution	회수 Withdrawal	순투자 Net	순투자 구성비
합계	43,659	36,672	6,988	100.0	36,294	31,526	4,768	100.0
아시아	8,979	8,754	225	3.2	6,830	5,844	986	20.7
중국	1,319	685	634	9.1	968	1,413	-445	-9.3
홍콩	372	315	57	0.8	1,107	871	236	4.9
대만	148	107	41	0.6	877	20	857	18.0
한국	249	478	-229	-3.3	87	18	69	1.4
싱가포르	5,504	6,567	-1,063	-15.2	3,702	3,277	425	8.9
태국	388	220	167	2.4	62	230	-168	-3.5
인도네시아	237	100	136	1.9	—	6	-6	-0.1
말레이시아	158	79	79	1.1	8	8	0	0.0
필리핀	210	48	162	2.3	1	1	-1	0.0
베트남	264	108	155	2.2	0	—	0	0.0
인도	56	6	50	0.7	0	0	0	0.0
북미	14,144	8,933	5,211	74.6	10,615	8,053	2,562	53.7
미국	13,454	8,714	4,740	67.8	10,608	7,753	2,855	59.9
캐나다	689	219	470	6.7	7	300	-293	-6.1
중남미	2,085	651	1,434	20.5	1,183	1,424	-241	-5.1
멕시코	138	124	14	0.2	—	6	-6	-0.1
브라질	49	29	20	0.3	—	—	—	—
케이만제도	650	31	619	8.9	1,079	1,373	-293	-6.1
대양주	1724	143	1,582	22.6	2,673	1,872	801	16.8
호주	1,607	116	1,492	21.4	1592	773	819	17.2
뉴질랜드	69	26	43	0.6	1	—	1	0.0
유럽	16,311	17,365	-1,054	-15.1	14,990	14,182	808	16.9
독일	2,227	2,031	196	2.8	1,463	1,487	-24	-0.5
영국	4,174	5,668	-1,494	-21.4	6,786	6,721	65	1.4
프랑스	1836	1813	23	0.3	315	361	-46	-1.0
네덜란드	811	1555	-743	-10.6	4,030	2,905	1,125	23.6
이탈리아	313	343	-30	-0.4	244	258	-14	-0.3
벨기에	2,441	2,037	404	5.8	506	585	-79	-1.7
룩셈부르크	1,842	1,375	466	6.7	33	18	15	0.3
스위스	306	234	72	1.0	1,455	1,645	-190	-4.0
스웨덴	50	77	-27	-0.4	18	8	9	0.2
스페인	23	2	22	0.3	84	129	-45	-0.9
러시아	51	41	10	0.1	—	—	—	—
중동	43	102	-58	-0.8	3	3	0	0.0
아프리카	373	724	-351	-5.0	0	150	-150	-3.1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2년 3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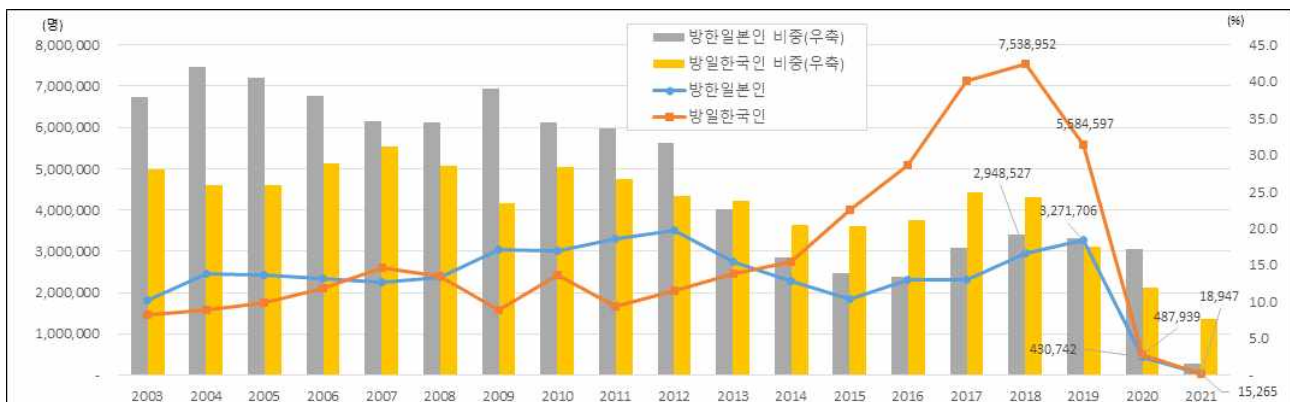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방일한국인 및 방한일본인 양쪽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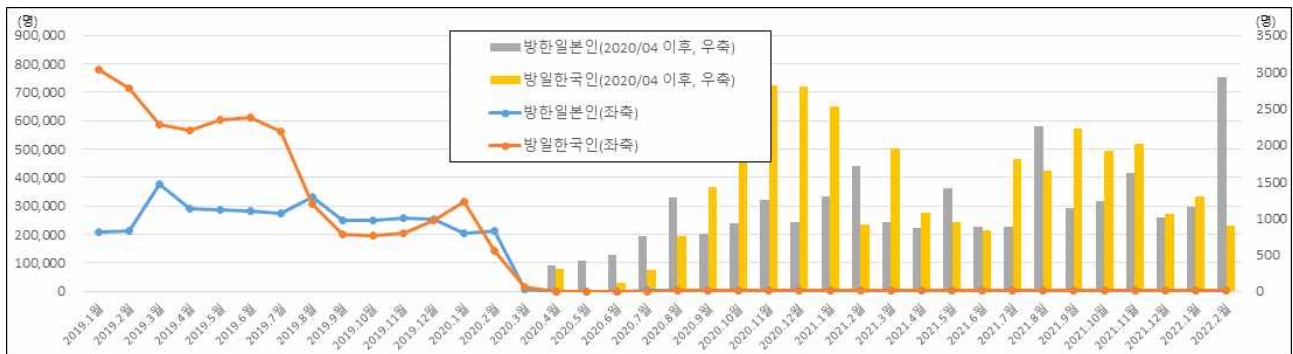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하여 3,271,706명에 달하였으나,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430,742명으로, 2021년에는 15,265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9년 18.7%, 2020년 17.1%에서 2021년에는 1.6%로 감소하였음(방한외국인 총수는 2019년 17,502,756명, 2020년 2,519,118명, 2021년 967,003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38,952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감소하여 5,584,597명이 되었고, COVID-19 영향으로 2020년에 487,939명, 2021년에 18,947명으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방일외국인 총수의 증가에 기인), 2019년 17.5%에서 2020년 11.9%, 2021년에는 7.7%로 감소하였음(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31,882,049명,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월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1,299명, 2월 1,719명, 3월 949명, 4월 872명, 5월 1,403명, 6월 875명, 7월 881명, 8월 2,258명, 9월 1,142명, 10월 1,237명, 11월 1,623명, 12월 1,007명, 2022년 1월 1,162명, 2월 2,934명)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COVID-19 영향으로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미미하지만 증가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2021년 1월 2,535명, 2월 910명, 3월 1,956명, 4월 1,076명, 5월 950명, 6월 835명, 7월 1,808명, 8월 1,647명, 9월 2,224명, 10월 1,921명, 11월 2,021명, 12월 1,064명, 2022년 1월 1,300명, 2월 900명)

□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2월 상황

- <표9>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류인원이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동월대비 방한일본인 및 방일한국인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방한일본인은 증가한 반면, 방일한국인은 감소하였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2년 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21년2월	2022년2월	증감률		2021년2월	2022년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65,582	99,999	52.5	전체	7,355	16,700	127.1
방한 일본인	1,719	2,934	70.7	방일 한국인	910	900	-1.1
일본인 비중	2.62	2.93		한국인 비중	12.37	5.3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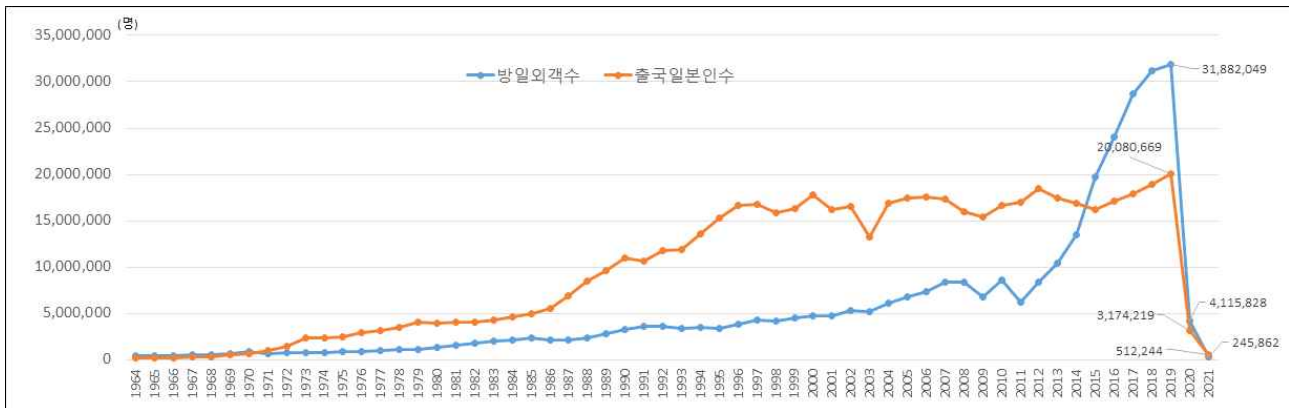
- 2022년 2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99,99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5% 증가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2,93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7% 증가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21년 2월 2.62%에서 2022년 2월 2.93%로 증가하였음
- 2022년 2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6,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7.1% 증가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9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21년 2월 12.37%에서 2022년 2월 5.39%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31,882,049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출국일본인수 20,080,669명보다 11,801,380명 더 많음
- COVID-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부터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모두 감소하였는데, 방일외객수는 2020년 4,115,828명, 2021년 245,862명으로, 출국일본인수는 2020년 3,174,219명, 2021년 512,244명으로 되었음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2년 2월 상황

- <표10>은 2022년 2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전체 수가 COVID-19 영향으로 2019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전년(2021년)동월대비로는 증가하였음
- 2022년 2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16,700명으로 2019년동월(2,604,322명)대비 99.4% 감소하였고, 전년동월(7,355명)대비 127.1% 증가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900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2,400명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7.4%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41.8%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필리핀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323.7%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2,600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240.2%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인도인 수는 1,700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161.9% 증가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600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63.5% 증가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2년 2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2월		2021년 2월		2022년 2월		2019년 동월대비 증감률 (%)	2021년 동월대비 증감률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방일외객수 (명)	비중 (%)		
전체	2,604,322	100.0	7,355	100.0	16,700	100.0	-99.4	127.1
한국	715,804	27.5	910	12.4	900	5.4	-99.9	-1.1
중국	723,617	27.8	1,747	23.8	2,400	14.4	-99.7	37.4
대만	399,829	15.4	423	5.8	600	3.6	-99.8	41.8
홍콩	179,324	6.9	39	0.5	70	0.4	-100.0	79.5
태국	107,845	4.1	92	1.3	100	0.6	-99.9	8.7
싱가포르	26,102	1.0	48	0.7	90	0.5	-99.7	87.5
말레이시아	36,660	1.4	72	1.0	100	0.6	-99.7	38.9
인도네시아	24,622	0.9	184	2.5	500	3.0	-98.0	171.7
필리핀	35,170	1.4	236	3.2	1,000	6.0	-97.2	323.7
베트남	39,377	1.5	194	2.6	2,600	15.6	-93.4	1240.2
인도	9,071	0.3	649	8.8	1,700	10.2	-81.3	161.9
호주	47,658	1.8	33	0.4	100	0.6	-99.8	203.0
미국	92,669	3.6	367	5.0	600	3.6	-99.4	63.5
캐나다	23,883	0.9	22	0.3	100	0.6	-99.6	354.5
멕시코	2,889	0.1	23	0.3	20	0.1	-99.3	-13.0
영국	23,554	0.9	73	1.0	100	0.6	-99.6	37.0
프랑스	17,397	0.7	79	1.1	100	0.6	-99.4	26.6
독일	13,384	0.5	52	0.7	80	0.5	-99.4	53.8
이탈리아	5,897	0.2	34	0.5	50	0.3	-99.2	47.1
러시아	4,533	0.2	38	0.5	50	0.3	-98.9	31.6
스페인	5,601	0.2	90	1.2	100	0.6	-98.2	11.1
중동지역	3,630	0.1	28	0.4	80	0.5	-97.8	185.7
기타	65,806	2.5	1,922	26.1	5,260	31.5	-92.0	173.7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Ⅳ.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2년 3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3월 25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20년	2021년	2021년 4-6월	2021년 7-9월	2021년 10-12월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1월	2022년 2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4.5	1.6	7.3	1.2	0.4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1.8	1.2	2.9	2.0	0.1	0.4	-0.5	-0.2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수송기계제외)	-9.5	14.2	22.7	21.1	10.5	10.9	10.9	8.0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81.5 -9.9	85.6 5.0	86.5 8.1	86.7 7.2	85.5 6.1	85.1 3.7	83.8 4.2	82.0 2.1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5.5	-0.9	11.6	-9.3	-13.9	-14.1	-12.3	-28.3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1.7 -6.4	12.2 5.1	34.4 5.1	13.6 7.8	1.3 1.4	4.7 6.1	2.0 1.0	-4.0 P 4.8	P 2.7 P -0.9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0.4	5.8	19.9	5.8	1.2	5.1	2.7	-0.5	
<법인경상이익-재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27.3	41.8	93.9	35.1	24.7				
<도산> 기업도산건수(건) 증감률	7,773 -7.2	6,030 -22.4	1,490 -18.8	1,447 -28.4	1,539 -12.1	510 -10.3	504 -9.6	452 -4.6	459 2.9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8	2.8	2.9	2.8	2.7	2.8	2.7	2.8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1.2 0.0	4.8 -0.2	4.6 -0.8	6.1 -0.2	8.8 0.5	9.2 0.6	8.7 0.8	8.9 0.5	P 9.3 0.9
<금융> 넛케이평균주가(엔) 환율(엔/\$)	22,705 106.73	28,836 109.89	28,983 109.50	28,553 110.09	28,810 113.70	29,370 114.13	28,514 113.87	27,903 114.83	27,066 115.20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2년 1월, 2월, 3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수요측 통계인 ‘가계조사’ (1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2%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월)에서는 소매업판매액이 전월대비 0.9% 감소하였음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보험권내로 되어 있고, 소비자 심리는 최근 약세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험 상태임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약세 상태임
- 외식은 최근 약세 상태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최근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이 정상화 쪽으로 향하면서 회복되어 갈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10-12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1년 10-12월기는 전기 대비 3.4%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기대비 3.4% 증가, 비제조업이 전기대비 3.3% 증가하였음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소프트웨어 투자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12월 조사) 및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1-3월기 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2021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1-3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개선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되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개선 등을 배경으로 회복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최근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 착공은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임대주택 착공은 최근 약세 상태임
- 분양주택 착공은 대체적으로 보험 상태임
- 총 호수는 1월에 전월대비 2.1% 감소하여 연율 82.0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약세 상태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약해지고 있음
- 1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대비 2.0% 감소, 2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대비 0.7% 증가, 1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대비 2.1% 감소하였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차 보정예산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수입도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
-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EU 및 기타 지역 쪽 수출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2월 방일외객수는 2019년 대비 99.4% 감소하였음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무역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로 되어 있는데, 1월 무역수지는 수입금액 증가로 적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1월에 전월대비 0.8%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월에 전월대비 1.4%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2월은 전월대비 5.7% 증가, 3월은 전월대비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 및 전자제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동향 및 공급 측면의 제약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 관해 의견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보면, 제3차 산업 활동은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 있는 가운데 비제조업의 일부에서 약세가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이고, 도산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10-12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12월기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24.7% 증가, 전기대비 17.4% 증가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22.1% 증가,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26.4% 증가하였음
 - 기업의 업황 판단에는 회복 움직임에 담보 상태가 보임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데, 1월 452건 이후 2월은 459건으로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이 남아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약세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인 등에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월에 전월대비 0.1% 포인트 상승하여 2.8%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수는 감소하였고, 완전실업자수는 증가하였음
 - 고용자 수는 보험권내에 있으며, 신규구인 수는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유효구인배율은 보험권내로 되어 있으며, 제조업 잔업시간은 최근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총액은 보험권내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도 보험권내로 되어 있음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부족초과로 나타남
 - 또한 당장의 상황에 관해서는 일일 유효구인건수나 민간의 구인 동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됨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기업물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2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대비 0.8%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최근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 기조를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책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 (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2월에는 전월대비 2.0% 포인트 상승하여 91.7%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 등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당분간 완만하게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 후 상승하였고, 엔/달러 환율은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였음
 - 주가는 27,100엔 대에서 24,700엔 대로 하락하였다가 28,000엔 대로 상승하였음
 - 엔/달러 환율은 114엔 대에서 121엔 대로 상승하였음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금리는 -0.01% 대에서 -0.00%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대비 0.3%(2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대비 7.6%(2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대비 3.6%(2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2년 3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2년 3월 25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노력함
- COVID-19 감염증에 대해서는 18개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만연방지등중점조치를 3월 21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해제하였음
 - 의료제공 체제의 강화 및 백신 접종의 촉진, 치료약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증 위협을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감소시키면서 경제사회 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해 나감
 - 해외유입 대책에 관해서는 면역체제 등을 계속적으로 감안해 가고, 국내외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감
- 나아가 경기의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당장의 경제가 지탱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과 고용 및 사업을 지켜내고 경제의 바닥 갈라짐을 방지함
 -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기동시키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여 경제를 자율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음
 -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및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대책’ (11월 19일 각의 결정)을 구체화하는 2021년도 보정예산 및 2022년도 예산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

- 또한 원유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관점에서 3월 4일에 ‘원유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것의 착실한 실행을 위해 노력함
- 향후에도 원유가격 등의 동향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면서 기동적으로 대응해 나감
- 일본은행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계속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전력관련 정책 및 동향

-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 각의 의결 및 전력수급 압박 경보 발령
 - 일본정부는 3월 1일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각의 의결했음
 - 재생에너지는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좌우되어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전을 적게 하고 있는데, 요금 플랜을 재검토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고 한층 더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에어컨 등의 기기에서는 전력 부족 시 자동으로 소비전력을 억제하는 기능의 탑재를 제조사의 노력 의무로 결정했음
 - 경제산업성은 3월 21일 밤, 22일의 도쿄전력 관내 1도 8현에 ‘전력수급 압박 경보’를 발령했고, 3월 22일에는 전력수급 압박에 따라 도호쿠전력 관내 동북지역 6개현과 니가타현에도 경보를 발령하였음
 - 전력수급 압박 경보는 동일본대지진 이후에 정비된 구조로 전력의 수요에 대한 공급의 여력을 나타내는 ‘공급 예비율’이 3%를 밑도는 경우에 발령됨
 -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3월 16일 밤에 발생한 지진으로 연안의 화력발전소가 재해를 입어 전력의 공급력이 크게 저하됐고, 기온저하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전력 수급이 급격히 압박받는 사태가 되었음

(출처: 산케이신문, 2022.03.01., 2022.03.21., 2022.03.23.; 요미우리신문, 2022.03.22.)

□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 엄격한 유입방지대책에 따른 일손 부족 및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제안보법안
 - COVID-19에 대한 엄격한 유입방지대책은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2021년 11월 30일 일본 정부는 해외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컸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연초에는 일본에서도 감염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구미 각국의 경우에는 감염 확대시 해외에서의 유입을 규제해도 효과가 적다는 판단 하에 유입방지대책을 완화했으나, 일본정부는 방침 전환이 늦어졌음
 - 농가의 경우 COVID-19 유입방지대책으로 외국의 기능실습생의 일본 방문이 어려워 일손이 부족한 상황임
 - 나고야시의 자동차 판매회사의 경우 일본인 인력이 부족한 정비사에 베트남 기능실습생을 받아왔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임
 -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보루에 경영이사 이코노미스트는 입국 제한으로 새로운 장기채재자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경제 손실이 2021년 한 해에 약 2.9조 엔에 달했다고 추계하고 있음
 - 한편, 기시다 정권의 주요정책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의 국회심의회가 본격화되고 있음
 - 세계 각지에서 주요 인프라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경제안보에의 대응을 당장의 과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음
- 코로나 관련 융자 이용률 50% 초과
 - 요미우리신문과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1만 1,562사 중 COVID-19 감염 확대로 마련된 융자 제도의 이용률이 2022년 2월 시점에서 50%를 넘었음
 - * 코로나 관련 융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지원하는 공적인 제도에 근거하는 대출
 - 융자한 돈의 용도는 인건비(50.1%), 원재료나 상품 구입(43.4%), 설비 수선·갱신(25.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건비 용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황과 관련된 응답에서는 ‘금리 감면이나 변제액의 감액·유예 등 조건완화를 받지 않으면 상황은 어렵다’, ‘상황이 늦을 우려가 있다’라는 불안을 털어놓은 기업이 미상환 기업의 9.0%에 이르렀고, 여관·호텔 업종의 경우 5사 중 1사가 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했음

- 이번 조사로 COVID-19 감염 확대로 인해 기업의 자금유통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2.03.15., 2022.03.22.; 산케이신문, 2022.03.27.)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탈탄소산업 및 스타트업 동향 등

- 토요타자동차의 내구 레이스 출전 및 미쓰비시중공업의 ‘타카사고(高砂) 수소파크’ 정비
 - 토요타자동차가 개발 중인 수소를 연소시켜 달리는 엔진차가 3월 19일 미에현 스즈카시의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 내구 레이스에 출전했음
 - 야마나시현이 수소를 새롭게 공급한 것 외 탈탄소에 공헌하는 합성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차량도 출전하여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향한 공감대 형성 및 연료의 선택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가스터빈 개발·제조의 거점인 미쓰비시중공업 타카사고제작소(高砂製作所)에서 가스터빈의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의 제조에서 발전까지 일관되게 검증하기 위한 실증설비 ‘타카사고수소파크’의 정비가 시작되었음
 - 미쓰비시중공업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 독일 지멘스와 함께 가스터빈 시장 3강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회사는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의 연소 온도를 10도 단위로 높이는 경쟁을 벌여 왔음
 - 탈탄소가 진행되면 화력발전 설비가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는 수정되고 있는데, 이는 탄소제로 실현에 수소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탈탄소 시대에 사용하는 화력설비 수요가 생기고 있기 때문임
 - J파워는 마쓰시마 화력 발전소에 석탄을 가스화해 수소를 만드는 설비를 부가해, 수소를 포함한 가스로 발전하는 대처에 착수했음
- 엡손의 3D 프린터 시장 진입 및 냉동기술 스타트업 데이브레이크(デイベレイク)
 - 엡손은 인쇄용 프린터 분사 기술을 응용하여 재료의 경도에 따라 압력을 조절하면서 밀어내고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다양한 경도의 재료에 대해 적용범위가 다양하며 제품 제조 비용은 기존 3D 프린터의 약 10분의 1 정도로 절감됨

- 2023년부터는 부품의 수탁생산이나 기계장치의 판매를 시작할 예정임
- 3D 프린터는 여러 가지 부품을 일체화하여 제조함으로써 부품의 경량화나 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주행거리 향상을 지향하는 전기자동차(EV)나 항공기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냉동기술 스타트업인 데이브레이크는 3월 25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Microsoft for Startups’에 채택되었다고 발표했다
- 데이브레이크는 2013년 창업한 특수 냉동기 전문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2021년 10월에 자사개발의 특수 냉동기인 ‘아트 록 프리저’를 발매하여 음식점이나 식품 메이커를 중심으로 이미 100건 정도를 수주했음
- 동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을 기본으로 IoT 기능을 갖춘 특수 냉동기 개발을 목표로 함

(출처: 닛케이신문, 2022.03.07., 2022.03.27., 2022.03.28.; 산케이신문, 2022.03.19.)

□ 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

○ 일본 국내 시장 전동차 현황 및 EV전지 경쟁

- 유럽·미국계 자동차 대기업 스텔란티스가 3월 1일 2022년 일본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동차 계획을 발표했다
- 동사는 이날 일본 법인 ‘스텔란티스재팬’을 발족시켰으며, 연내에 일본에서 전개하는 전기자동차(EV)는 6개 모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는 13개 모델이 된다고 함
- 또한, EV와 PHV의 보급을 재촉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일본 국내 판매 거점의 85%에 충전 설비를 마련할 예정임
- 스즈키는 인도에서 EV나 EV용의 차재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의 증강 및 건설에 약 1,500억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2026년의 가동을 목표로 함
-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3위로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향후도 확대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환경 대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음

○ 반도체의 3D화와 반도체산업 동향

- PC나 고성능 서버에 이용하는 첨단 반도체의 개발로 여러 개의 칩을 쌓아 성능을 높이는 3차원(3D) 기술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 이전까지는 반도체 성능 향상의 주역이 하나의 실리콘 기판 상에 대량의 회로를 작게 만드는 미세화였으나, 2010년대 들어가면서 선풍이 원자의 크기에 가까워져 미세화의 페이스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의 칩을 세로로 겹쳐 쌓는 3D나 옆으로 나란히 접속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TSMC는 3D 반도체 기술개발력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후속 공정 연구 개발 기능을 마련해 일본의 장치·재료 메이커와 협업하는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인데, 3D 반도체의 제조에는 일본기업이 강점을 가진 후공정 기술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임
- 한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TOWA는 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맥 즉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에 봉지(封止)장치를 제공하고 3D 패키징 공동개발에 나섰다
- 또한, 3D 반도체의 제조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복수 칩의 접속에 이용하는 ‘인터포저’인데, 대일본인쇄는 2021년 11월, 종래의 실리콘제에 비해 양산 효율이 높은 「RDL」이라고 부르는 인터포저의 신기술을 발표하였음
- 반도체의 3D화는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분업이나 제휴를 진행시킬 가능성을 만들게 되며, 3D 반도체 개발 제조 기술을 축으로 반도체 업체들의 업계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음
- 한편, JX금속은 3월 16일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첨단재료 생산 증가에 2026년 3월까지 2,000억 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음
- JX금속은 100% 출자하는 카셀로네스 구리광산(칠레) 등 광물자원 채굴로부터 제련, 첨단소재까지 제조하여 일관되게 다루는 것이 강점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2.03.14., 2022.03.16.; 아사히신문, 2022.03.14., 2022.03.19.)